

# K-배터리, ESS 경쟁력 강화 美·유럽 선진시장 본격 진출

전기차 성장세 둔화... 돌파구 모색

삼성SDI 'SBB1.5' 출시 예정  
LG엔솔 美 생산 인프라 확충  
SK온 북미 전용공장 신설 검토



LG에너지솔루션 ESS 전력망 컨테이너 제품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ESS(에너지저장장치)가 배터리의 차세대 주요 매출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는 북미와 유럽 등 선진시장을 공략해 수요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11일 시장조사기관 BNEF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규모는 지난 2021년 110억달러에서 오는 2030년 262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SS는 신재생과 원전 등 경직성 전원 증가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송전선로 건설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핵심적 도구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국내 배터리 업계는 ESS 관련 기술력 강화 등을 통해 신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시장보다는 ESS 지원 정책이 활발한 미국과 유럽을 타겟으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미국 정부는 중장기 ESS 로드맵을 구성해 오는 2030년까지 대규모 장기 ESS의 비용을 90% 감축하기로 했다. 다양한 ESS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는 동시에 가정용 ESS 배터리에는 지원 자체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유럽 또한 EU(유럽연합)의 탄소 배출 감소 정책에 힘입어 ESS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유럽 시장 60% 이상을 영국과 독일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높은 전기료 인상 정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ESS 시장은 CATL, BYD 등 중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 업체는 가격이 저렴한 LFP 배터리를 앞세워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기차 캐즘 현상이 지속되며 최근엔 기술력 있는 한국 배터리업체들에 대한 ESS용 배터리 주문도 늘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업계는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SDI는 현재 미국 최대 전력 기업인 넥스트에너지에 1조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ESS)용 배터리 납품 계약 마다지에 들어갔다. 또한 이달 미국에 차세대 전력용 ESS 배터리 'SBB1.5'를 출시할 예정이다. SBB는 20피트 컨테이너 박스에 하이니켈 NCA 배터리 셀과 모듈, 랙 등을 설치한 제품으로 전력망에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SBB1.5'는 기존 제품 대비 에너지밀도가 37%가량 향상돼 총 5.26MWh(메가와트시) 용량을

구현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4월 미국 애리조나에 7조2000억원을 투입해 ESS용 배터리 공장을 착공했다. 수요 둔화 장기화 우려로 공장 건설은 일시 중단했으나 함께 착공한 원통형 배터리 공장 건설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국 미시간 공장 등 현지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생산라인의 일부를 ESS 라인으로 바꿔 양산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SK온 또한 지난 2023년 3월 북미 지역 ESS 배터리 사업 확대 계획을 공유했다. 미국 현지에서 ESS 배터리 전용 공장을 신설 검토 중이다. 지난 2021년에는 SK에코플랜트, 케이디파워와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친환경 ESS 구축을 위해 협력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가운데 ESS 시장 확대에 발맞춰 관련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ESS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韓 기업, 2분기 매출 5.3% ↑

한은 기업경영분석결과  
대기업 중심 경영환경 개선 추세

올해 2분기(4~6월)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기계·전기전자 등 수출 비중이 많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이다. 차입금의존도도 대기업은 감소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기존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2만3137곳)의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은 모두 개선됐다.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는

2023년 2분기 -4.3%에서 올해 2분기 5.3%로 상승했다. 올해 1분기(1.2%)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도 6.2%로 1년전(3.6%)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했다. 전분기(5.4%)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채비율은 88.9%로 1년전(90.8%)과 비교해 소폭 낮아졌다. 올해 1분기(92.1%)와 비교해도 감소한 수준이다.

강영관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전반적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이 개선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이 차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주요 외신 "해리스 토론 주도... 우위 명확"

>> 1면 '해리스 vs 트럼프...'서 계속

현장에서 트럼프 발언 후 실소가 터져 나왔고 진행자는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잡았다.

주요 외신은 해리스가 토론에서 우위를 점했다던 평가를 내렸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해리스가 승리했고 접전은 아니었다"며 승패가 명확히 갈린 토론이었다고 평했다.

로이터는 "검사 출신 해리스가 초반부터 토론 주도권을 잡고 트럼프를 흔들었다"며 "눈에 띄게 흥분한 트럼프가 거짓으로 가득 찬 반박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전했다.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뒷에 걸려들어 패배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

지 주지사는 토론 후 ABC에 "해리스는 정교하게 잘 준비돼 있었고, 뒷을 놓았다. 반면 트럼프는 말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모든 토끼를 쫓아다니며 구멍을 파고들었다"며 "이건 잘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평가했다.

공화당 전략가 랜스 트로버도 "국경과 경제에서 트럼프는 우위를 점했지만, 너무 자주 해리스의 미끼를 받아들여 패스를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토론이 해리스가 완전히 승기를 잡는 계기가 되진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팽팽하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박빙의 승부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규훈 기자 ch9720@

JUNG KWAN JANG

제조사 및 판매처: (주)한국인삼공사 | 건강기능식품업자

## 추석에도 건강은 정관장으로



## 추석 맞이 사은 행사

2024.8.23~2024.9.18

가까운 정관장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기대할 필요 없는  
매장직접  
마음을 대신전하는  
정물 배송  
소중한 분께  
특별포장